

영암 최대 의료기관, 경매·파산신청...의료공백 우려

前 병원장 압류와 경영난으로 폐원 직전

군립병원·의료협동조합병원 전환 필요성 대두

전남 영암지역의 최대 의료기관인 영암 병원이 경매가 진행된 데 이어 파산을 신청해 자칫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4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영암병원은 전 병원장인 김모씨와 A약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총 55억여원의 압류를 걸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 개시 최초 감정가는 79억1000여만 원 정도이나, 지난해 9월과 올 4월 말 2차례 유찰됐고 오는 8일 3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와 별도로 영암병원은 경영이 악화되면서 올해 초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병원 관계자는 "전임 원장인 김모씨가

50억원대 압류를 걸어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재의 의료법인이 유지될 경우 채권압류를 풀고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파산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나 의료법인이 병원을 목적으로 나날 받을 경우 병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누가 나날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88년 문을 연 영암병원은 일반병실 123병상과 정신병동 234병상 등 모두 357병상을 운영 중이다.

현재 병원에는 일반환자 41명, 정신질환자 150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병원이 폐원할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영암병원이 폐원 처지에 놓이면서 지역에서는 이렇다할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실정을 감안해 군립병원이나 의료협동조합병원 설립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응급의료체계가 없는 현실상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독지가가 병원을 인수해 공익차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없어 야간진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각 1명, 행정직원 1명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병원은 많은 환자가 있거나 지역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며 "우선은 군에서 관여하기보다는 파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립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돼 열악한 군 재정 여건



파산신청과 함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영암병원

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병원을 인수할 다른 법인이거나 개인이 경매를 낙찰받거나 재력이 있는 분이 나서 병원을 리모델링해

운영하면 가장 좋을 듯 싶다"고 덧붙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 남구 백운고가차도 철거공사가 시작된 4일 폐쇄된 고가차도 옆으로 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광주 백운고가 폐쇄 첫 날 **우려했던 교통대란 없었다**

"걱정했던 것 만큼 막히지는 않았어요." 하루 통행량이 5만3000대에 달했던 광주 백운고가 철거를 위해 4일 0시부터 차량통행이 폐쇄된 가운데 우려했던 출근길 교통체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남부모범운전자회 민병도씨(62)는 "차량 통행량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씨는 "고가들 이용하지 못하면서 농성동 쪽으로 가는 차들이 몰려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봤는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8시가 지나자 출근길 차들이 늘면서 백운교차로에서 동아병원과 진월동 방

향으로 차량이 100m 가량 줄지어 신호를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두세번의 신호를 받고서 교차로를 빠져나갔다.

농성동 방면 신호를 기다리면서 시가 배포한 우회도로 안내지도를 보던 운전자 한 모씨(58)는 "이 정도 정체는 평소와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통정리 중이던 한 경찰관은 "주월교차로 방면과 남광주교차로 방면 도로에 차로 확장공사를 하고 우회도로를 미리 안내한 것이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백운고가 철거 공사는 11월까지 이어진다. 김경석 기자

순천·광양·곡성·구례 첫 폭염주의보...낮 최고 32~34도

광주기상청 "9일까지 30도 안팎"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순천·광양·곡성·구례 등 전남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발령된 첫 폭염특보다.

4개 시군의 낮 최고기온은 4일 32~34도, 5일 31~34도로 예보됐다. 그 밖의 지역도 내륙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아 덥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까지 30도 안팎의 낮 최고기온이 예상된다"며 "건강관

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각진 학교·획일화된 교실은 잊어주세요"

전남도교육청, 학교공간 혁신사업

구령대-놀이공간·도서관-영화관

각진 건물, 네모난 교실 등 획일적이고 딱딱한 학교 공간이 개선 있고 다양한 창의적 공간으로 바뀐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형 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다되는 학교공간' 혁신 사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순천 별량초와 해남 화산초에서 학교공간 혁신 공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벌인 35개 학교가 참여해 확 달라

진 학교 공간을 선보였다.

도교육청의 '다되는 학교공간' 혁신 사업은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교육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첫 공개에 나선 순천 별량초는 권위적 시설물의 상징이었던 본관 앞 구령대를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바꾼 사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해남 화산초는 기존의 딱딱한 도서관을 폭신폭신한 개별 책공간과 영화 감상 공간 등으로 꾸몄다.

강성윤 순천 별량초 교장은 "넓은 구령대가 학생들의 쉼과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 것도 만족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

이 수업과 자치활동을 통해 학교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여기게 된 것이 더 큰 성과"라고 말했다.

조혜자 해남 화산초 교장은 "이번 조성된 도서관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뜻깊은 책 누리실'이라 이름지었다"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두가 함께 협의하고 참여해 학교의 공동체를 만들어 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 공간 혁신사업은 1차 공개 기간인 6월에는 이들 두 학교를 비롯해 13개교가 공개하고, 오는 9월 2차로 13개교, 11월에는 3차로 9개교, 그리고 12월에 2개교가 순차적으로 성과를 공개한다.

장성용 전라남도교육감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상상으로 교실과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곳곳을 바꿔내고 전남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즐거움과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을어는

고흥군의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